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19. 12. 13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 럽

- 터키, 프랑스 국적 ISIS 포로 11명 본국 송환
 - 12.9 터키는 프랑스 출신 ISIS 포로 11명을 본국으로 추방했다고 발표. 佛 외무부 관계자는 “극단주의자와 그 가족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체포됐으며 공개되지 않고 비밀리에 처리된다”고 언급
- 유럽연합(EU), 테러와 전쟁 중인 모리타니에 낙타 250마리 지원 논란
 - 12.11 BBC는 EU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과 싸울 무기로 낙타 250마리를 모리타니에 지원하자, 모리타니에는 이미 낙타가 넘쳐나며 첨단 무기 원조가 더 도움될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보도
 - * EU는 낙타원조가 1천300만 유로(약 172억원) 지원 규모의 일부이며, 낙타 부대가 사막에서 기동성이 좋아 정찰과 정보수집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

미 주

- 美, 멕시코 마약 카르텔 테러단체 지정 보류
 - 12.7 美 「트럼프」 대통령은 “카르텔을 테러단체로 지정하기 위한 모든 작업이 완료됐으나, 우리와 훌륭히 협력해 온 「오브라도르」 멕시코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테러단체 지정을 잠시 보류한다”고 발표
 - * 멕시코가 보안군을 동원하여 중남미 이민자들의 미국행을 막고있는 상황 고려

아 · 태평양

○ 전파 차단장치 사용 가능한 「안티 드론법」 발의

- 12.5 윤상직 의원은 대테러 활동, 군사기지·시설 보호, 원자력 시설 방호, 통합방위작전 등에 전파차단 장치를 활용하여 드론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「안티 드론법」 대표 발의

* 김진표 의원 ‘안티 드론법’ 발의(11.2), 송희경 의원 ‘안티 드론법’ 발의(11.20)

○ 필리핀, 민다나오섬 계엄령 2년 반 만에 해제

- 12.10 「두테르테」 필리핀 대통령은 '17.5월 반군이 민다나오 마라위市를 점령한 이후 민다나오섬 전체에 선포되었던 계엄령을 더이상 연장하지 않고 올해 말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현지 언론 보도

* 민다나오섬의 이슬람 극단주의 반군 등 토벌을 위해 그간 3차례 계엄령 연장

중 동

○ 美-탈레반, 3개월 만에 평화협상 공식 재개

- 12.8 AP통신은 지난 9월 美 「트럼프」 대통령의 ‘협상 사망 선언’ 이후 3개월 만에 카타르 도하 정치사무소에서 美와 탈레반의 평화협상이 공식 재개되어 협정 서명과 관련한 문제들을 논의했다고 보도

* 11.28 「트럼프」 대통령은 아프간을 방문하여 美軍 축소 의지 피력

○ UN 전문가위원회, ‘리비아가 ISIS의 새로운 중심지 부상’ 보고서 발표

- 12.10 UN 전문가위원회는 ISIS의 잔존세력이 차드·수단에서 리비아로 침투하고 있으며, 특히 내전으로 피해해진 리비아에서 새로운 중심지를 구축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

* ISIS는 리비아를 ‘장래 모든 작전의 주요 축(main axes)의 하나’라고 선언

○ UN, 사우디 정유시설 피격 조사결과 발표

- 12.10 UN사무총장은 지난 9월 사우디 쿠라이스와 아브카이크의 아람코 정유시설 공격에 쓰인 미사일·드론 등 잔해를 검사하였으나, 이란의 소행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발표

* 사건 당시 미국과 사우디가 이란을 공격 배후로 지목했으나, 이란은 부인

이집트 카이로 소재 콥트교회 대상 자살폭탄 공격

- '16.12.11 이집트 수도 카이로 아바시아 지구에 위치한 세인트마크 콥트 정교회 예배당에서 폭탄테러로 인해 사망 24명, 부상 49명 등의 인명피해 발생
 - 보안당국은 범인이 교회 예배당으로 단독 진입하여 허리에 착용한 폭탄을 터뜨렸으며, 약 12kg의 TNT 폭약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
 - 교회에는 공휴일을 맞아 평소보다 더 많은 신도들이 예배를 위해 운집해 대형 인명피해 발생(피해자 대부분은 여성과 아동)
 - ISIS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배포한 성명에서 테러범이 「아부 압달라 알 마스리」라는 가명의 조직원이라며 배후를 자처 했으나
 - 이집트 정부는 DNA 시료분석 등을 통해 범인의 신원이 「마흐무드 샤피크 모스타파」(22, 남)이며 카타르에 있는 무슬림 형제단으로부터 물자와 자금지원을 받고 있는 제3의 조직과 연계되어 있었다고 발표
- * 한편, 무슬림 형제단은 이집트 정부의 발표에 대해 관련성 전면 부인

테러 상식

< 무슬림형제단(Muslim Brotherhood) >

- (목 표) 이집트 내 세속주의 배경 및 이슬람가치 구현과 확산
 - * 이집트('13년)·사우디('14년)·러시아('03년)가 테러단체로 지정
- (결성시기) 이집트의 세속주의에 반발하여 정치·사회운동을 위한 조직으로 결성(1928년)
- (연계세력) 하마스(HAMAS)
- (활동지역) 이집트, 요르단, 시리아 등 중동 및 北아프리카 일대
- (주요동향)
 - ① '11.6 아랍의 봄 이후 자유정의당 창당, 총선에서 498석 중 235석 확보
 - ② '12.6 무슬림형제단이 지원하는 「무르시」가 대통령에 당선
 - ③ '13.7 경제파탄에 반발한 시위를 계기로, 군부가 「무르시」 정권 축출
 - ④ '15.5 카이로 법원, 「무르시」를 비롯한 무슬림형제단 간부 105명에 대해 2011년 민주화 시위 당시 탈옥·살인·방화 등 혐의로 사형 선고

